

## 폴란드의 농업현황\*

윤 영 석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 1. 폴란드 일반연왕

#### 1.1. 개왕

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 이하 폴란드)은 중부 유럽의 대평원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서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며,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남쪽으로는 슬로바키아 체코, 북쪽으로는 러시아 연방과 발트 해와 맞닿아 있다<그림1 참조>. 국토의 90% 정도가 해발 300m 이하의 평탄하고 완만한 지형으로 유럽 대평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31만 2,685km<sup>2</sup>로 한반도의 대략 1.4배이다. 폴란드에서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비스와 강은 광대한 유역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하류 지역은 운하를 발달시켜 발트해에 위치한 여러 항구와 내륙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의 기후는 주로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지만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가 혼재되어 있다. 강수량은 남부 국경 산악지대가 평균 1,000~1,100mm로 가장 많고, 중부지역이 평균 600mm로 가장 적다. 기온은 초봄과 가을이 0~5℃, 봄가을이 5~15℃, 여름이 20-25℃ 이상, 겨울이 0℃ 이하이며, 연평균 기온

\* (jnu72132gmail.com).

은 7~10℃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격차가 적지만, 북동부와 남부산지는 평균보다 기온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폴란드 국토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삼림은 침엽수림이 주로 발달하였고 서·남부에는 활엽수림이 혼재되어 있다.

그림 1. 폴란드 지도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 1.2. 정치 및 사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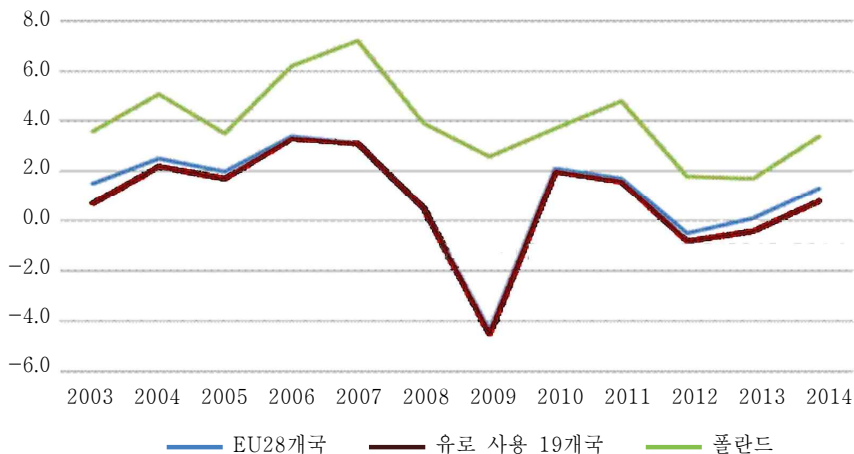
폴란드는 제1차 대전 중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도움으로 1918년 11월 11일 독립국가로 재수립되었다. 소련,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 동쪽에서는 소련이, 서쪽에서는 나치독일이 침공함으로써 1945년까지 독일과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시기에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독일은 폴란드 문화 말살과 유대인 학살을 저질렀다. 1945년 소련이 독일을 폴란드에서 몰아내면서 폴란드는 공주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수립

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총선의 결과로 사회당과 폴란드 공산당 중심의 인민전선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공산 정부가 폴란드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공산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지면서 1980년 여름 전국적인 노동자 파업 운동이 일어났고 자유화 운동이 확산되었다.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은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989년 6월 자유선거로 총선이 실시되었고 이후 1989년 12월 의회에서 사회주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민주 및 자유경제 조항 삽입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폴란드는 1999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맹국이 됨으로써 국가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받았고,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서구 경제권으로 재편입되었다. 현재는 중부 유럽 국가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반테러와 같은 범세계적 이슈 해결을 주창하는 등 국제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1989년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자유화를 추진해온 폴란드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룩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년간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3.9%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 평균의 대략 2~3배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보였다.

그림 2. 폴란드 및 유로 사용 19국, 유럽연합 평균GDP 성장률 비교(2003~2014)



주: 유로 사용 19개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임.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015.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균형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지원되는 EU 펀드 유입액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민간 소비의 굳건한 성장으로 인해 2008-09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EU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중동부 유럽의 경제 강자로 발돋움하였다.

현재 폴란드는 독일 등 서유럽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임금 대비 우수 노동력,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현재 폴란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 해소, 지속적 개혁 추진을 통한 재정 적자폭 축소, 폴란드 동부 지역의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낙후된 인프라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료주의 철폐 등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표 1. 폴란드 거시경제 지표(2013~2016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목 GDP(US\$십억)	524.1	545.2	477.3	469.5
실질경제성장률(%)	1.4	3.3	3.8	2.7
1인당GDP(US\$, PPP)	24,718	25,707	26,856	27,811
물가상승률(HICP기준, %)	0.8	0.1	-0.7	-0.2
실업률(%, 연평균)	13.4	11.5	9.7	8.3
청년 실업률(15~24세, %, 연평균)	27.3	22.0	20.3	15.9
금리(%, 연말기준)	2.5	2	1.5	1.5
수출(US\$십억)	206.1	222.3	200.3	205.0
수입(US\$십억)	208.8	225.9	197.7	200.7
무역수지(US\$십억)	-2.6	-3.6	2.7	4.4
연평균환율(US\$대비)	3.16	3.15	3.77	3.94
정부재정적자(GDP대비%)	-4.1	-3.5	-2.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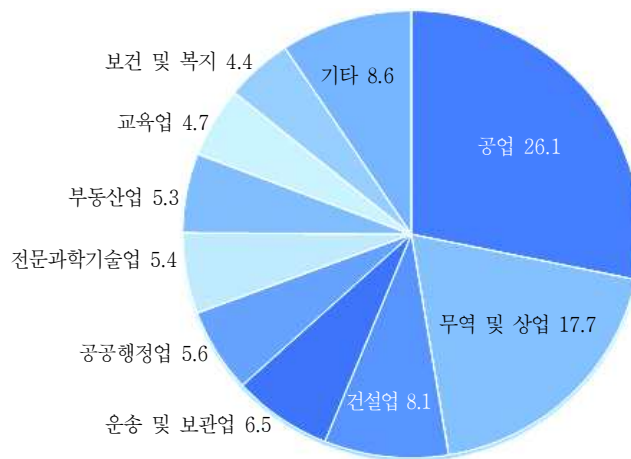
주: 각 년도 연평균 환율 적용. HICP는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임.  
 자료: 폴란드 중앙통계청,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oland Country Report'.

### 1.3. 주요 산업동향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폴란드는 공산 정권하에서 기계, 중화학 공업을 주력으로 발전하며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World Bank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폴란드는 총 산업 중 서비스업이 63.3%를 차지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

IT,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 등의 부문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2015년 현재 폴란드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 중 공업이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무역 및 상업 17.7%, 건설업 8.1%, 운송 및 보관업 6.5%, 공공행정업 5.6%, 전문과학기술업 5.4%, 부동산업 5.3%, 교육업 4.7%, 보건 및 복지업 4.4%, 기타 산업 8.6%등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폴란드 산업별 비중(2015년)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Annual macroeconomic indicators' 2016.12.16.

## 2. 폴란드의 농업 현황

### 2.1. 일반현황

폴란드는 농촌인구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2000년 1,460만 명에서 2016년 현재 1,5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촌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38.3%에서 39.5%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농업 GDP는 2000년 53억 1,800만 달러에서 2014년 142억 4,600만 달러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최근 2015년과 2016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업 GDP 비중은 2000년 3.5% 수준에서 2016년에는 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폴란드의 농지면적은 EU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0년 18만 4,000km<sup>2</sup>에서 2014년 14만 4,000km<sup>2</sup>로 21.7% 감소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EU 가입 이후 폴란드 농업구조의 변화 경향과 비농업부문으로의 농지 전환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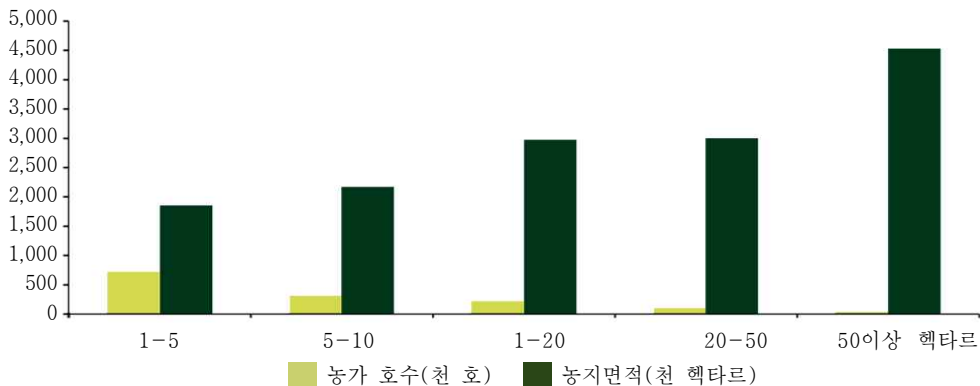
표 2. 폴란드 농업 일반 현황

구분	단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총인구	백만 명	38.3	38.2	38.0	38.0	38.0	37.9
농촌인구	백만 명	14.6	14.7	14.9	15.0	15.0	15.0
농촌인구비중	%	38.3	38.5	39.1	39.4	39.5	39.5
총GDP	백만 달러	171,885.6	306,134.6	479,321.1	545,151.8	477,336.8	469,508.7
1인당GDP	천 달러	4.5	8.0	12.6	14.3	12.6	12.4
농업GDP(부가가치)	백만 달러	5,318.1	8,871.5	12,298.9	14,245.8	10,513.3	10,012.0
농업GDP(부가가치)비중	%	3.5	3.3	2.9	2.9	2.5	2.4
국토면적	천 km <sup>2</sup>	306.3	306.3	306.3	306.2	306.2	306.2
농지면적	천 km <sup>2</sup>	184.1	159.1	144.5	144.2	-	-
경지면적	천 km <sup>2</sup>	139.9	121.4	108.3	109.3	-	-
경지면적 비중	%	45.7	39.6	35.4	35.7	-	-

자료: World Bank Data (world Development Indicator).

한편, 폴란드는 140만 농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은 2002년 5.8헥타르에서 2011년 9.1헥타르, 2014년 10.3헥타르로 지속적으로 규모화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 농지면적의 규모화에도 불구하고, 농지면적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2014년 농지규모별 농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폴란드 농가의 51%는 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들의 농지면적은 단지 폴란드 전체 농지면적의 12.7%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폴란드 농가의 5.2%에 해당하는 72,000 농가는 평균적으로 30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들은 폴란드 전체 농지면적의 41.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2014년도 농지 규모별 농가 현황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토지 이용, 2014.

일반적으로 농지의 비옥도가 낮고 산성 토양의 점유율이 높으면 토지의 농업생산 효율성이 감소하는데, 폴란드 농지의 비옥도는 EU 평균보다 낮고 토양의 투수성과 직결되는 사토의 비율은 60.8%로 EU 평균이 31.8% 보다 두 배가량 높다. 또한, 낮은 수준의 칼슘 비료 소비로 토양의 산성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폴란드의 토지생산성은 EU의 주요 농업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2.2. 생산 및 소비 현황

현재 폴란드의 농산물 생산은 2014년 기준으로 유럽 내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네덜란드에 이어 7위에 해당하는 유럽 내 농업 강국 중 하나이다. EU-28국가의 농업 생산량에 있어 폴란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구체적으로 폴란드는 EU 내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 커런트, 라이밀, 샴피뇽(유럽 원산의 송이과 식용 버섯) 품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또한 호밀, 귀리 및 쌀 생산은 두 번째 생산국이며, 곡물, 사탕무, 유채, 양파 및 감자, 유제품(우유, 치즈, 버터), 토마토 및 담배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표 3. 폴란드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0	2005	2011	2012	2013	2014	2012-14
우유	2,144.7	3,423.4	5,078.1	4,660.2	5,456.6	5,643.7	5,253.5
돼지고기	2,116.9	2,999.2	3,837.1	3,983.9	3,865.2	3,700.6	3,849.9
밀	993.9	994.9	2,587.9	2,365.6	2,391.8	2,521.4	2,426.3
쇠고기	464.9	744.5	1,415.8	1,446.2	1,455.2	1,501.3	1,467.6
유채	177.9	346.4	1,155.6	1,135.4	1,247.9	1,370.7	1,251.4
감자	1,293.6	817.2	1,023.6	949.2	1,128.0	945.7	1,007.6
라이밀	201.6	371.5	1,042.1	828.9	885.5	986.3	900.3
옥수수	91.6	211.0	549.8	898.2	857.6	772.0	842.6
조란	377.6	542.2	633.5	947.3	767.7	798.6	837.9
보리	320.9	412.9	849.8	1,055.1	683.1	654.0	797.4
사과	85.4	331.6	711.9	645.0	873.6	535.8	684.8
호밀	332.5	290.4	654.8	660.7	588.8	472.7	574.1
사탕무	308.3	644.3	567.4	519.5	529.6	538.8	529.3
토마토	45.8	92.3	223.6	295.0	394.7	432.2	374.0
버섯	83.8	180.1	319.9	328.9	360.3	360.6	349.9
오이	114.7	174.5	211.9	248.2	292.8	260.6	267.2

(계속)

품 목	2000	2005	2011	2012	2013	2014	2012-14
양배추	156.4	183.2	357.5	230.8	241.3	263.1	245.1
귀리	95.8	119.5	303.6	296.6	201.1	236.7	244.8
체리	83.3	140.6	215.6	260.9	207.5	154.5	207.7
딸기	56.6	64.2	215.7	201.9	154.9	159.6	172.1
라즈베리	25.8	42.3	104.9	114.0	196.0	190.6	166.9
양과(건조)	65.3	92.9	164.5	110.6	149.4	165.9	142.0
브로콜리	46.4	70.3	107.9	91.8	103.6	111.9	102.4
당근과 순무	50.1	78.7	109.3	93.6	90.9	87.4	90.6
커런트	132.0	43.0	222.6	106.9	95.1	43.8	81.9

자료: FAOSTAT.

폴란드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가계 소득 증가로 감소하고 있다.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에 따르면, 2013년 식료품 지출 비중은 2004년보다 2.5% 감소한 24.4%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식료품 소비의 다양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유 및 낙농 제품 소비뿐 아니라 식물성 지방 및 가공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과일 및 채소 소비는 2004년 이후 하락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EU-15회원국의 평균 소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2.2.1. 곡물류

곡물류 생산은 폴란드 농업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이다. 폴란드의 곡물류 재배면적은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넓으며, 생산량은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곡물류 생산에 대한 폴란드 농업인의 선호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재배기술, 저장 및 판매의 용이성, 사료 등의 원료로 이용되는 곡물의 다양한 용도에 기인한다.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은 전체 식품 경제에 필수적인데, 곡물류 부문은 다른 시장, 특히 돼지 및 가공류 등 축산부문의 생산 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014년 폴란드의 곡물류 생산은 밀, 옥수수, 라이밀 생산이 주를 이루었다. 2014년 폴란드의 전체 곡물류 재배면적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750만 헥타르이며, 전체 곡물류 생산량은 3,19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2006-2010년 평균 생산량과 비교하면 19.5% 증가한 수치이다. 생산량 증가는 주로 단수 증가에 기인하였다. 2014년 곡물류 평균 단수는 4.2톤/헥타르로 2013년 대비 12.3% 증가하였다.<sup>1)</sup>

곡물류에 대한 수요는 수년 동안 2,600~2,800만 톤을 유지하고 있다. 2014/15시즌

1) 2014년 곡물의 품목별 단수로는 밀 5톤/헥타르, 옥수수 6.6톤/헥타르, 보리 및 라이밀 4톤/헥타르, 호밀 3.2톤/헥타르임.



곡물류 소비는 전년도 2,680만 톤 대비 3.4% 증가한 2,770만 톤을 기록하였다. 국내 수요의 주요 소비처는 축산부문(평균 1,600~1,800만 톤)이며, 2014/15시즌에는 가금류 및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여 축산부문의 곡물류 소비가 약 120만 톤 증가하였다. 곡물류의 가공용 소비 또한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식용 소비는 조금 감소하였다. 폴란드의 곡물류 소비는 식습관 변화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2.2. 채소류

2014년 노지 채소 생산량은 464만 톤으로 2013년 400만 톤 대비 15.9%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은 양배추, 양파, 사탕무이며, 토마토는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채소류 품목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폴란드는 양배추 116만 톤, 꽃양배추 25만 톤, 양파 65만 톤, 당근 82만 톤, 붉은 사탕무 36만 톤, 토마토 27만 톤, 오이 27만 톤을 생산하였다. 기타 채소류 생산량은 전년대비 23.3% 증가한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설재배 채소의 생산량은 97만 톤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고 고급 식재료인 샐피농 생산량은 28만 톤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표 4. 폴란드의 채소류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06-2010	2013	2014	2014	
				2006-2010=100	2013=100
채소류	5,302.0	4,986.0	5,607.2	105.8	112.5
노지 채소	4,564.7	4,003.9	4,639.0	101.6	115.9
양배추	1,195.4	975.4	1,156.4	96.7	118.6
꽃양배추	220.1	210.1	245.6	111.6	116.9
양파	649.3	551.1	651.1	100.3	118.1
당근	853.3	742.5	822.6	96.4	110.8
사탕무	335.7	298.2	357.8	106.6	120.0
오이	269.2	253.6	266.9	99.1	105.3
토마토	254.4	270.4	271.9	106.9	100.6
기타 <sup>a</sup>	787.2	702.7	866.7	110.1	123.3
시설 채소	737.3	982.1	968.2	131.3	98.6
토마토	411.0	559.4	538.7	131.1	96.3
오이	209.7	259.2	265.1	126.4	102.3
기타	109.9	163.5	164.3	149.5	100.5
샐피농 <sup>b</sup>	214.0	270.0	275.0	128.5	101.9

주: a. 파슬리, 부추, 셀러리, 무, 상추, 대황, 아스파라거스, 딜 등 b. 시설재배 파프리카, 양상추, 가지, 무 등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2015).

2014/15 시즌 거의 모든 채소류 소비자 가격은 이전 시즌보다 낮아졌다. 가장 큰 가격 인하는 양배추(43%)와 양파(41.7%)로 기록되었으며, 당근 가격은 유럽의 높은 수요로 인해 12.5% 증가하였다. 큰 폭의 소비자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국내시장 공급증가에 기인하였다.

### 2.2.3. 과일류

2014년 과일 생산량은 예상외로 많은 419만 톤을 기록하였다. 과수 생산량은 362만 톤으로 2013년 350만 톤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2006-2010년 평균 과수 생산량 보다는 44% 더 많이 생산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과 생산량은 320만 톤으로 2013년 309만 톤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2006-2010년 평균 사과 생산량보다 거의 50% 더 많이 생산하였다. 그밖에 배 생산량은 7만 톤, 자두는 11만 톤, 체리는 18만 톤, 스위트 체리는 5만 톤, 복숭아, 살구, 호두 등 기타과수 생산량은 2만 톤을 기록하였다.

표 5. 폴란드의 과일류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06-2010	2013	2014	2014	
				2006-2010=100	2013 = 100
과일류	3027.1	4128.4	4188.9	138.4	101.5
과수	2514.7	3521.6	3620.1	144.0	102.8
사과	2136.0	3085.1	3195.3	149.6	103.6
배	58.5	75.7	73.7	126.0	97.4
자두	93.0	102.4	106.1	114.0	103.6
체리	168.1	188.2	176.5	105.0	93.8
스위트 체리	38.0	47.6	48.1	126.5	101.1
기타a	21.0	22.6	20.4	97.1	90.3
관목 및 베리류	512.4	606.8	568.8	111.0	93.7
딸기	184.3	192.6	202.5	109.9	105.1
라즈베리	73.0	121.0	125.9	172.4	104.0
커런트	184.6	198.5	162.6	88.1	81.9
초크베리	42.2	57.9	43.4	102.7	74.8
구스베리	15.2	15.0	12.4	81.8	83.1
블루베리	7.6	12.7	12.5	163.0	97.9

주: a. 복숭아, 살구, 호두 등.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2015).

---

2014년 관목 과일 및 베리류 생산량은 57만 톤으로 2013년 61만 톤 대비 6.3% 감소하였지만, 2006-2010년 평균 관목 과일 및 베리류 생산량보다는 11% 더 많이 생산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딸기 생산량은 20만 톤으로 추산되며, 커런트 16만 톤, 라즈베리 12만 톤, 초크베리 6만 톤, 구즈베리 2만 톤, 블루베리 1만 톤을 생산하였다. 2014/15년 폴란드의 과일 가공품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5% 증가한 107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과 주스 농축물 생산이 34만 톤으로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낸 결과이다. 한편, 잼, 푸레, 통조림 제품 및 말린 과일의 생산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5시즌에는 이전 시즌과 비교하여 거의 모든 과일류의 소비자 가격은 감소하였다.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한 품목은 체리와 커런트로 나타났다. 사과가격은 2014년 가을 러시아의 엠바고 조치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디저트용과 가공용이 전년대비 각각 13%, 4% 이상 하락하였다.

#### 2.2.4. 유채

폴란드에서의 유채 생산은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유채의 사용 가능성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농업 생산품 중 하나이다. 폴란드의 유채 꽃 생산은 변동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단수와 과중면적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한편, 유채 재배 및 가공은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바이오 연료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EU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2003-2014년 유채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6.1%)와 단수 개선(1.8%)의 결과로 매년 7.9% 증가하였다. 전국 과중 지역에서 유채 비중은 지난 5년 간 평균 4%에서 9%로 증가하였다. 2014년 유채 생산량은 2013년 대비 22.3% 증가한 32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재배면적과 전년대비 18.2% 개선된 단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폴란드의 유채 재배는 돌니실롱스크 주, 쿠파비포모제 주, 루블린 주, 마조프셰 주, 오폴레 주, 포모제 주, 바르미아마주리 주, 비엘코폴스카 주와 자호드니오포모르스키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2.2.5. 담배

폴란드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담배 생산 규모면에서 EU 가입국 중 4위에 위치해 있다. 2014년 담배 재배는 14.6만 헥타르의 면적에 약 9,000명의 농업인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2014년 담배 생산량은 35만 톤으로 1헥타르 당 2.46톤으로 높은 생산효율을 기록하였다.

폴란드 담배 재배자의 90% 이상은 담배생산자협회 회원이며, 잘 조직된 1차 가공 네트워크에 의해 폴란드 현지에서 가공되고 있다.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폴란드 담배는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이 수출용으로 미국 유명 브랜드의 제조담배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담배 수출국 중 하나로 담배 부문에서의 대외 무역의 긍정적인 균형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담배 산업은 전체 식품 경제의 대외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2.6. 쇠고기

폴란드의 2014년 12월 기준 소 사육두수는 566만 마리이며, 연평균 1.1%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소 사육두수 증가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송아지의 사육두수와 전년대비 5.5% 증가한 1-2세 어린 소의 사육두수 증가에 기인하였다. 반면에 2014년 암소 사육두수는 240만 마리로 2013년보다 3만8천 마리 감소하였다. 종합적으로 2014년 쇠고기 생산량은 42만 톤으로 2013년 37만 톤 대비 12% 증가하였다. 폴란드의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주로 수출지역 소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2014년에는 국내 쇠고기 생산량의 81.1%가 수출되었다.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쇠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5.96즈위티로 2013년 6.20즈위티 대비 3.9% 하락하였다.

### 2.2.7. 돼지고기

2014년은 돼지 사육이 수년 중 처음으로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4년 11월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1,130만 마리로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27만 마리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축 및 번식을 위한 돼지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지만,<sup>2)</sup> 육성을 위한 모돈 사육두수는 2013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폴란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180만 톤으로 전년도보다 약 12%인 20만 톤 증가하였다. 2014년 돼지고기의 평균 구매 가격은 kg당 4.82즈위티로 2013년 5.39즈위티 대비 10.6% 하락하였다. 돼지고기 가격하락은 특히 2014년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EU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발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EU산 돼지고기를 포함한 식품에 수입 금지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돼지고기 가격은 EU 가격과 환율에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하였다.

2) 도축 및 번식을 위한 돼지는 체중이 20kg-50kg인 돼지를 일컬음.

### 2.2.8. 가금육

도축용 가금육 생산은 닭고기 및 칠면조 고기가 전체 가금육 생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가금육 생산은 높은 역학 관계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 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금육 생산은 수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는 전체 생산량 중 수출이 46.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가금육 생산 증가는 국내 수요 증가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MARD)에 따르면, 2014년 닭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3.67즈위티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다. 한편, 칠면조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5.81즈위티이며, 연평균 1.2%씩 감소 추세에 있다.

### 2.2.9. 우유

폴란드에서의 우유 생산은 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이다. 폴란드 통계청(GUS)에 따르면 2014년 상업용 우유 생산은 143억 8,700만 즈위티로 전체 상업용 농업 생산의 18.6%를 차지하였다. 2014년 유제품 생산량은 젖소 사육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1% 증가한 126억 리터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젖소의 착유 효율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우유 구매량은 103억 리터(1,060만 톤)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13년 대비 7.2% 증가하였다. 우유 공급의 증가는 유제품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지분유 생산량은 17만 톤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전지분유 생산량은 48만 톤(전년 대비 4.2% 증가), 버터 생산량은 157만 톤(전년 대비 5.2% 증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구르트의 생산량은 434만 톤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치즈는 722만 톤(전년 대비 1.8% 감소), 유장은 128만 톤(전년 대비 11.5% 감소)을 기록하였다.

2014년 우유 소비 성장으로 폴란드는 2014/15년 마지막 분기에서 전국 할당량을 초과하였다. 농산물시장기구(Agency for Agricultural Market)가 제공한 연간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2014/15 쿼터 연도에 소비한 우유의 총량은 1,051만 톤에 달하였다. 따라서 전국 할당 쿼터는 58만 톤(5.85%)을 초과하였으며 할당된 개별 쿼터를 초과한 도매 공급 업체 수는 거의 64만 개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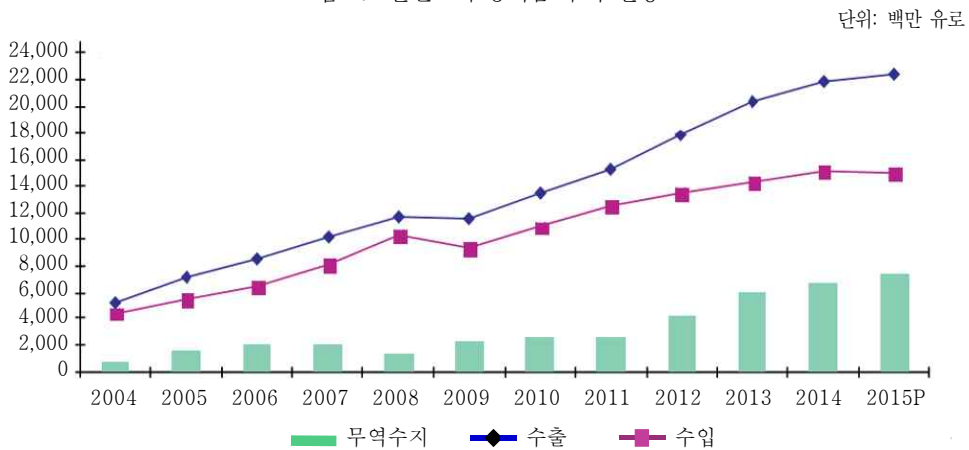
2014년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의 특징은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2013년 호황이던 시장 상황이 붕괴하였다는 것이다. 우유 평균가격은 2013년 대비 1.1% 상승한 137.11즈위티/100리터였지만, 2014년 초와 말을 비교하면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은 하락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유 가격은 1월에 100리터당 153.65즈위티에서 12월에 123.48즈위티로 19.6% 감소하였다. 또한, 탈지분유 -36.2%, 전지분유 -26.6%, 숙성 치즈 -25%, 버터 -19.6%, 사워크림 -5.4% 등 전반적으로 모든 유제품 가격이 하락하였다.

### 2.3. 무역 연왕

농식품 대외 무역은 수년 동안 폴란드 대외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유럽과 세계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14년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은 원유 가격 및 환율 변동(유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의 급격한 감소, 폴란드의 지정학적 갈등에 의한 불확실성의 증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검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엠바고 조치로 인한 농식품 무역의 제한 등이 있다. 폴란드 농식품 수출업체가 직면한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무역은 실제로 증가하였다. 2014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219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51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수입액보다 수출의 성장이 더 커짐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10.3% 증가하여 기록적 수준인 67억 유로로 나타났다.

그림 5. 폴란드의 농식품 무역 현황



자료: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MARD) (2015).

한편, 2015년 농식품 수출은 22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 비해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150억 유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는 75억 유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상반기에 농식품 무역은 2013년도 작물 수확 후 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은 생산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반면에 폴란드의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연합은 안정적이지 못한 수급상황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농산물 수입에 대한 러시아의 금수조치 효과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으며, 회전을 저하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격이 하락하였다.

폴란드의 2014년 전체 상품 무역수지에서 농식품 부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폴란드 상품수출에서 농식품 수출의 비중은 13.2%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수입 비중은 9%로 2013년 대비 0.1%p가량 하락하였다.

그림 6. 폴란드의 상품무역에서 농식품 비중



자료: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MAR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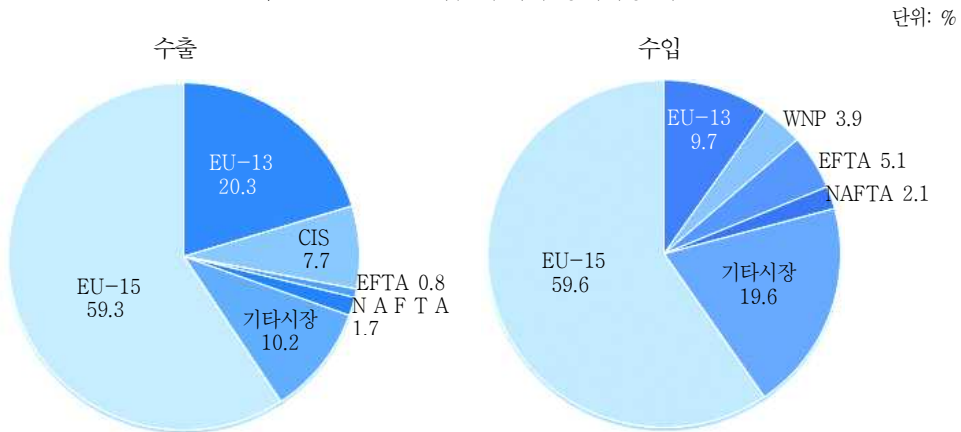
외국과 폴란드의 상업적 관계 네트워크(commercial link network)는 비대칭적이다. 폴란드의 농식품 분야 주요 무역 상대국은 EU 회원국이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2014년 79.6%로 2013년 78.4% 대비 1.2%p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U 15개국<sup>3)</sup>의 비중은 0.4%p 증가한 58.9%, EU 13개국<sup>4)</sup>은 0.3%p 증가한 20.2%로 나타났다. 수입 또한 EU 소속 국가의 농식품으로 집중되고 있다. 2014년 폴란드 농식품 수입에서 EU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9.3%로 전년도(69.5%)보다 0.2%p 감소하였다. EU 15개국의 비중은 59.3%(2013년 59.2%), EU 13개국은 9.8%(2013년 10.3%)로 나타났다. 한편, 러

3) EU 15개국: 초기 EU 가입국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현재 탈퇴 상태),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속함.

4) 13개국: EU가입의 후발주자들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속함.

시아의 수입 embargo(2014년 8월)와 관련하여 폴란드를 포함한 EU의 농식품 수출 감소 폭이 뚜렷해짐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농축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및 북미의 개발도상국에서 대체 시장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림 7. 폴란드 농식품 무역의 상대시장 비중



자료: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MARD), 농식품대외무역, 2015.

### 2.3.1. 수출

전통적으로 폴란드 농식품 수출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독일이다. 2014년 폴란드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은 22.7%로 2013년의 23.1% 대비 0.4%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다. 2014년 폴란드의 對 독일 농식품 수출은 49억 유로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다. 독일에 수출되는 주요 농식품으로는 고기 및 가금류(7.1%), 빵, 과자 및 비스킷(4.3%), 유채 종자(4.2%), 담배 제품(4.2%), 과일주스 주로 사과(4.0%), 우유 및 사워크림(3.4%), 밀(3%),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3%), 주로 딸기와 라즈베리를 이용한 냉동 과일(3%) 등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폴란드의 농식품 수출시장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8% 가량을 차지하는 영국이다. 영국은 2014년에 17억 유로의 농산물을 폴란드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에 수출되는 주요 농식품으로는 육류 제품과 소세지(17.0%), 초콜릿 제품(14.1%), 육류 및 가금류 (11.1%), 빵, 패스트리와 비스킷(4.9%), 사과 (2.9%), 신선한 채소 (2.9%)로 등이다.

2014년 폴란드 농식품 수출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은 프랑스이며,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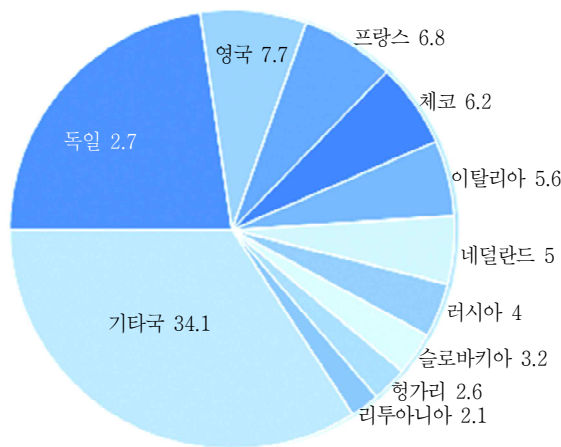
수출액은 15억 유로로 전년대비 25.2% 증가하였다. 2014년 폴란드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프랑스의 비중은 2013년 5.8% 대비 1.0%p 상승한 6.8%이다. 프랑스가 폴란드로부터 담배 제품 및 담배(34.3%), 고기 및 가금류(7.2%), 알콜음료(5.3%), 식품(5.1%), 빵류·과자류 및 비스킷(3.6%) 등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폴란드 농식품 수출시장 중 네 번째로 비중 있는 국가는 체코로 14억 유로 상당의 농식품을 폴란드로부터 수입하여 폴란드 전체 농식품 수출의 6.1% 점유하였다. 체코는 유채유(10.6%), 육류 및 가금류(8.6%), 커피(7.4%), 치즈(6.2%), 비스킷 및 웨이퍼 포함한 제과제품(5.8%), 돼지고기(5.6%), 초콜릿 제품(3.6%), 미네랄워터 및 탄산수(3.5%) 등을 주로 폴란드로부터 2014년에 수입하였다.

그밖에 이탈리아(12억 2,000만 유로), 네덜란드(10억 9,000만 유로), 러시아 연방(8억 8,000만 유로), 슬로바키아(7억 유로), 헝가리(5억 7,000만 유로), 리투아니아(4억 6,000만 유로) 등이 폴란드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속한다.

그림 8. 폴란드의 주요 농식품 수출 대상국

단위: %



자료: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MARD) (2015).

한편, FAO 자료를 통해 살펴본 폴란드의 주요 농식품 수출 품목으로는 담배, 기타 조제식료품, 기타 초콜릿제품,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패스트리, 기타 조제과일, 치즈, 조제원료, 사과, 버섯, 칠면조 고기, 뼈 없는 쇠고기, 밀, 정제설탕, 커피(볶은 것), 냉동채소, 유채유, 설탕과자 등이다.

표 5. 폴란드의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비중(%)
총 농축산물 수출	2,229.6	8,168.2	15,877.4	18,770.9	20,946.6	23,908.1	100.0
담배	49.3	257.6	1,421.6	1,623.4	1,722.3	1,809.5	8.1
기타조제식료품	99.8	473.4	993.4	1,121.6	1,140.6	1,381.7	5.7
기타조콜릿제품	135.0	341.4	874.2	1,078.1	1,127.7	1,348.6	5.6
돼지고기	51.3	309.0	552.4	800.0	992.3	1,206.9	4.7
닭고기	71.6	231.8	572.3	690.0	806.9	912.3	3.8
쇠고기	16.7	229.3	656.2	755.8	803.1	796.4	3.7
패스트리	69.1	433.1	664.5	760.6	620.9	715.6	3.3
기타조제과일	232.2	368.3	541.8	614.1	682.9	679.4	3.1
치즈	39.0	270.8	451.2	521.9	552.3	723.1	2.8
조제원료	108.6	293.2	393.7	452.0	472.9	551.1	2.3
사과	32.2	118.6	272.6	278.1	437.8	578.7	2.0
버섯	32.1	196.8	366.3	373.6	403.2	426.6	1.9
칠면조 고기	0.0	135.8	286.2	396.7	391.5	391.9	1.9
뼈 없는 쇠고기	10.0	97.6	329.2	366.2	351.6	422.0	1.8
밀	0.3	56.3	201.4	274.2	331.2	463.6	1.7
정제설탕	78.9	229.9	236.1	268.4	431.6	360.4	1.7
커피(볶은것)	43.9	43.0	186.5	317.2	334.7	285.2	1.5
냉동채소	66.8	187.8	268.5	270.4	290.8	331.7	1.4
유채유	3.2	81.1	227.2	230.0	233.2	390.4	1.3
설탕과자	41.1	121.5	214.1	224.9	253.4	304.4	1.2

자료: FAOSTAT.

### 2.3.2. 수입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농식품 수입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EU국가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EU-15 회원국이다.<sup>5)</sup> 그 밖에 농식품 수입 대상국으로는 EU-13 회원국(9.7%), 러시아(3.9%), EFTA(5.1%), NAFTA(2.1%) 및 기타 국가(19.6%)가 있다. 2014년 독일산 농식품에 대한 폴란드의 수입은 34억 유로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여 전체 농식품 수입에서 22.2%를 차지하였다. 독일에서 수입되는 주요 농식품으로는 돼지고기(6.9%), 동물사료(5.2%), 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및 와플(4.6%), 돼지(4.0%), 치즈(3.6%), 커피(3.0%), 설탕시럽(3.0%) 등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 농식품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로 2014

5) 2014년 기준 폴란드 농식품 수입에서 EU는 86%를 차지하며, EU-15는 59.6%를 점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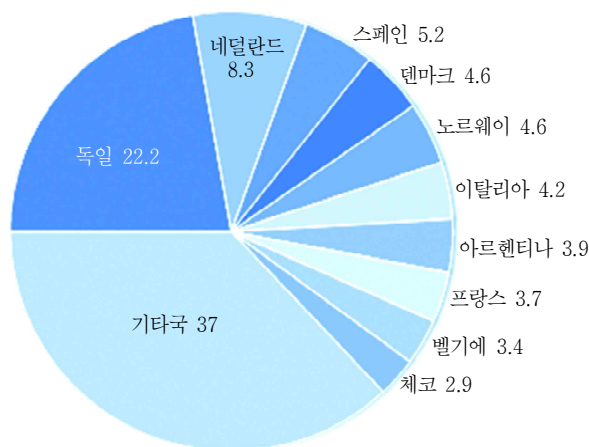
년에 전년대비 7.1% 증가한 12억 유로 상당의 농식품을 수입하였다. 주요 네덜란드산 수입품으로는 꽃(13.5%), 돼지고기(9.6%), 야자유(4.8%), 코코아버터(3.6%), 씨앗(3.0%), 설탕시럽(3.0%) 등이다.

폴란드에서 세 번째 농식품 수입대상국은 스페인이며, 2014년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7억 8,500만 유로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원예 상품의 전통적 수출국으로서 폴란드에는 신선 감귤류(33.3%), 신선 채소류(18.6%), 돼지고기(12.4%) 등을 수출하고 있다.

그밖에 돼지고기, 치즈 등을 주로 수입하는 덴마크(7억 유로), 노르웨이(7억 유로), 이탈리아(6억 4,000만 유로), 아르헨티나(6억 유로), 프랑스(5억 8,000만 유로), 벨기에(5억 3,000만 유로), 체코(4억 유로) 등이 폴란드의 주요 수입대상국이다.

그림 9. 폴란드의 주요 농식품 수입 대상국

단위: %



자료: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MARD) (2015).

한편, FAO 자료를 통해 살펴본 폴란드의 주요 농식품 수입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대두박, 조제원료, 기타 조제식료품, 기타 초콜릿제품, 비조제담배, 돼지, 고무, 커피 생두, 음식물 사료, 팜유, 패스트리, 커피추출물, 유채유, 와인, 치즈, 커피(볶은 것), 증류주, 기타 조제과일, 밀 등이다.

표 6. 폴란드의 주요 농식품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비중(%)
총 농축산물 수입	2,911.20	6,149.80	12,668.30	15,718.50	15,849.70	16,670.90	100.0
돼지고기	51.2	344.8	1293.8	1525.3	1606.1	1718.0	10.1
대두박	193.3	465.8	792.0	825.4	1013.1	1049.2	6.0
조제원료	182.0	451.2	710.6	763.9	779.1	834.3	4.9
기타 조제식료품	128.8	339.1	655.6	687.0	698.7	726.9	4.4
기타 조콜릿제품	43.6	166.8	384.4	464.2	471.8	540.2	3.1
비조제담배	80.0	187.5	400.7	438.3	443.2	473.1	2.8
돼지	0.5	39.1	155.6	225.1	415.9	583.4	2.5
고무	39.4	113.5	283.7	549.5	358.4	308.4	2.5
커피 생두	134.4	128.2	230.7	350.3	319.4	220.6	1.8
음식물사료	47.7	100.5	211.7	286.9	275.9	307.8	1.8
팜유	23.2	65.6	185.9	276.7	266.3	299.7	1.7
패스트리	19.5	96.5	222.9	257.1	252.7	320.2	1.7
커피추출물	57.7	134.8	213.7	262.8	265.4	263.1	1.6
유채유	4.0	12.8	113.5	282.8	308.7	147.9	1.5
와인	46.8	111.3	198.0	232.6	230.4	265.2	1.5
치즈	17.5	54.1	171.5	223.2	210.0	280.4	1.5
커피(볶은 것)	21.4	57.0	143.4	198.5	221.9	226.0	1.3
증류주	14.0	73.6	161.6	194.8	184.4	233.1	1.3
기타 조제과일	28.8	85.6	153.4	208.9	191.3	205.5	1.3
밀	85.3	31.9	127.8	245.2	200.8	148.2	1.2

자료: FAOSTAT.

## 2.4. 농업 정책

### 2.4.1. 농업소득 직접 지원

폴란드는 가장 최근에 가맹한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단일지역직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SAPS)<sup>6)</sup>를 적용받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에는 호프, 전분 및 담배를 대상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직불이 이행되었다. 또한 폴란드 농민들은 별도의 설탕

6) 단일지역직불제(SAPS)는 기존에 직불금을 지급했던 전례가 없는 EU의 신규가맹국을 위한 제도로 국가별·지역별 차이를 고려하는 지역모델(regional model)임. 지역별로 면적 기준하여 직불 단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됨. 단일지역직불은 농가가 현재 어떤 작물을 어느 정도 생산하는지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지만, 단일농장직불과 마찬가지로 경작 규모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불금 수령액은 경지규모가 클수록 증대함. 또한 회원국들은 직불금 수령을 위한 최소한의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인 농가들은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지불, 별도의 토마토 지불, 별도의 씨없는 작은 과일 지불 등을 통해 2010년부터 혜택 받고 있으며, 2012년부터 소, 양, 특별한 콩과 식물에 대한 지불 및 고품질의 담배에 대해 지원받고 있다. 2014년에는 135만 명의 농민이 직접지불로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한해 지급된 직접지불 최대 총액은 142억 즈위티였으며, 2004-2014년 기간 동안 1,210억 즈위티가 농업인 수혜자에게 지불되었다.

2015-2020년 기간 동안 폴란드를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은 차기 공동농업정책 하에서 새로운 직접지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3년 12월 1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일반적인 농업 정책 틀 내의 지원 계획 하에서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단일지역지불, 기후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농업 관행에 대한 지불,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불, 생산 지불(소, 암소, 양, 염소, 씨없는 작은 과일, 호프, 고단백질 포함 채소, 사탕무, 전분 감자, 토마토, 아마 및 섬유용 대마초), 부가적 지불, 소농에 대한 직접지불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폴란드는 이를 기회삼아 담배에 대한 일시적 국가 지원을 2015-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소농 지원**

2015년부터 EU 회원국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직불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폴란드는 이를 수용하여 규모가 작아 직불제에서 소외되거나 직불금을 수혜 받더라도 경작규모가 작아 수혜정도가 미미한 농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농 지불은 연간 500~1,000유로를 농가에 일괄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동농업정책 규정에 따라 직불제 예산의 최대 10%가 소농 지불 목적으로 배분된다.

### **(2) 청년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EU 각 회원국마다 필수적이며, 이 유형의 지원을 통해 회원국은 할당된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최대 2% 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직불제는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는 인력은 매우 적은 반면에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겪는 EU의 농업·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지급금은 지주 관리자의 역할로 처음으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는 농업인 또는 최초 단일지역 지불금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 5년 내에 농장을 설립한 농업인, 그리고 신청서 제출 시점에서 40세를 초과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주어진다. 이 지원은 법인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 (3) 생산 관련 지원

폴란드는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15%를 생산 관련 지급액(EU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비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불은 소, 암소, 양, 염소, 씨없는 작은 과일(딸기 및 나무 딸기), 호프, 고단백질 포함 채소, 사탕무, 전분 감자, 토마토, 아마 및 섬유용 대마초 등의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생산 관련 지불의 목적은 특정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부문 및 어려운 여건에 처한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이 지불금은 앞에서 언급 한 분야의 최근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만 간주해야 한다.

### (4) 가축에 대한 지불

농업인은 소에 대한 지불, 젖소에 대한 지불, 양에 대한 지불 및 염소에 대한 지불과 같은 형태로 동물 생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즉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농가에 관련 지급금이 승인되고 있다.

- 소에 대한 지불 - 24개월 이하의 소를 적어도 3마리 이상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마리까지 지불된다.
- 젖소에 대한 지불 - 24개월 이하의 젖소를 적어도 3마리 이상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마리까지 지불된다.
- 양에게 지불 - 12개월 이상 된 암양을 적어도 10마리 이상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사육지에서 사육되는 모든 양에 지급 된다.
- 염소에 대한 지불 - 12개월 이상 된 암염소를 적어도 10마리 이상 보유한 농가의 대상으로 하며 사육지에서 사육되는 모든 염소에 지급 된다.

### (5) 씨 없는 작은 과일에 대한 지불

이는 딸기 또는 나무 딸기 재배 면적에 부여된다. 재배 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공을 위한 과일 재배면적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과일의 품질도 지불 범위로 감안한다.

## 2.4.2. 농업기관

### (1) 농산물시장기구

농산물시장기구(Agricultural Market Agency, AMA)는 25년 동안 농식품 부문을 지원해 왔다. 1990년에 설립되어 농산물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추구

---

해왔다.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이후, EU의 농업 정책 발전과 함께 농산물시장기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농산물시장기구는 공인된 지불 기관으로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시행하는 기관에 속하며, 그 활동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시장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2014년은 2014-2020년에 채택된 새롭고 개혁된 원칙에 따른 공동농업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중 농촌개발프로그램 (Agricultural and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농산물 시장기관은 2014-2020년 기간 동안 "농산물 품질 시스템"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또한 유럽빈민원조기금(FEAD)에서 자금을 조달 받아 운영하는 식량원조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2014-2020년 기간 동안 위임받았다. 지불을 초래하는 활동 외에도 이 기구는 생산쿼터시스템, 해외무역 메커니즘, 생산 및 가공모니터링 및 통제메커니즘 등 비재무적인 메커니즘을 관리하고 있다.

## (2) 농업개혁 및 연대와기구

농업재건 및 현대화기구(Agency for Restructuring and Modernization of Agricultural, ARMA)는 1994년 이래 농업과 농촌 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활동해 왔다. 창립 초창기에는, 이 기구의 지원은 주로 국가 기금에서 투자 및 자본 대출 이자율에 대한 기여 형태로 이루어졌다.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후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지원 가능한 수단도 늘어났다. ARMA의 주요 임무는 직접지불 하의 지불 수단 및 폴란드 농촌 개발을 위한 EU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 ARMA는 2007-2013년 및 2014-2020년 동안 EAFRD,<sup>7)</sup> EAGF<sup>8)</sup> 등 EU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수행 기관이자 지불 기관이다.

ARMA의 주요 수혜자는 농업인, 농식품 부문의 기업가, 농촌마을 거주자, 농업 생산자 그룹 및 수산 부문 경영인을 포함한다. 기구가 공동 재정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사회 집단을 위해 사용되며, 그 결과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7) 유럽농어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2007-2013년 농촌 개발 프로그램 (RDP 2007-2013) 및 2014-2020년 농촌 개발 프로그램 (RDP 2014-2020)에 따라 농촌 개발에 관한 모든 조치를 지원함.

8)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CAP의 첫 번째 기둥(직접 지불, 청과물 시장의 공통 조직, 수산 시장의 공통 조직) 하에서 원조기구의 역할을 수행함.

### 3. 시사점

폴란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열강들 틈 속에서 역사적으로 잦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열강에 의하여 국가가 분열되는 과정을 겪어왔던 약소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의 폴란드는 EU의 가맹국으로서 지정학적 위치를 장점으로 내세워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위치를 매우 잘 활용하여 유럽 내륙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토지 비옥도가 낮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환경이었으나, EU 가맹과 함께 2003년 이래로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특히 체계적으로 조직된 정부의 시스템 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육성과 이와 함께 2,500개가 넘는 농업식품회사를 통한 식품가공 부문에서의 다양한 상품 개발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폴란드는 농업식품분야에서 외국자본을 운영하는 500개 이상의 회사가 있으며, 외국 기업들 중에는 하인즈, 유니레버, 매케인, 네슬레, 프리 토 레이, 켈로그, 카길, 페레로, 다농 및 화성과 같은 대형업체들이 폴란드에 가공공장을 두고 있다. 2004-2014년 기간 동안 폴란드 농식품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500억 달러(1,705억 유로)에 이르며, 110만 개의 정규직을 창출하였다. 주요 투자는 미국과 스위스, 영국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식품 수출산업의 기반으로서 국가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폴란드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대규모 시장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목할만한 품목을 새로이 창출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규제로 인하여 농식품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사드배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두 번째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식품의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폴란드의 농업 수출 성공요인은 귀감이 될 만하며, 특히 2014년 러시아의 엠바고 조치<sup>9)</sup>에 따른 폴란드의 대처방안은 사드에 따른 농식품 수출 불안 요인을 타개하기 위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9) BBC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수상 Janusz Piechocinski는 "폴란드가 러시아의 폴란드산 야채와 과일의 수입금지 조치로 치르게 될 올해(2014) 말까지의 국가적 손해는 폴란드 GDP의 0.6%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

## 참고문헌

25 years of Polish Agriculture, 2014, Puławy Competence Center  
Agriculture and Food Economy in Poland. 2015.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 강대국 폴란드, 농약시장 급성장. 2015. KOTRA 해외시장 뉴스.

## 참고사이트

FAOSTAT ([www.fao.org/faostat/en/#data](http://www.fao.org/faostat/en/#data))  
The Worldbank data([data.worldbank.org](http://data.worldbank.org))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http://seul.mfa.gov.pl/ko/>)  
폴란드 통계청(<http://stat.gov.pl/>)  
폴란드 농업농촌발전부(<http://www.minrol.gov.pl/eng/Start>)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